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교육관 5층 집회실 의자 교체

예배용 장의자에서 개인용 의자로 분반공부 및 발표, 교제 등의 공간으로 활용이 용이해져

지 난 주일부터 교육관 5층은 새로운 분위기로 예배, 집회, 분반공부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모든 집회실에 자리잡고 있던 예배용 장의자를 치우고 그대신 각 개인용 의자를 들여놓은 것이다. 이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 싶겠지만 이 일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 가히 교육혁명이 라고 할 수 있는 숙원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서에서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예배실(집회실)이 모두 움직일 수 없는 장의자로 채워져 있기에 예배(집회) 시간 외에는 활용할 수가 없는 공간들이었다. 물론 예배나 집회 후 장의자에 일렬로 앉혀놓고 교사가 서서 일방적으로 가르쳐 왔고 그것을 우리는 분반공부라고 하며 우리 교회 역사만큼이나 시행해 왔다. 그것도 초등학교 정도에서나 가능했고 고등부나 대학부, 청년부 정도만 되어도 그런 식의 분반공부는 할 수가 없어서 교회의 전체 영역 가운데 빈 공간을 찾아나서 분반공부를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개선이 안되는 영역이었다.

몇년 동안 교육관 5층을 집회실로 써 오고 있는 청년1부는 분반공부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한정된 공간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지난해부터 집회실의 장의자를 개인용 의자로 대체하면 여러 면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교육관 5층이 한 부서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함께 사용하는 부서들의 협조, 동의가 필요했다. 따라서 초등학교 부서는 처한 상황과 입장이 달라서 합의를 보지 못해오던 중 금년에는 중등부서가 5층을 사용하게 됨으로 피차 합의하여 개



▲ 예배 후 예배실에서 의자를 둥그렇게 하고 분반공부를 하고 있다(중등3부).

인용 의자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안을 발전적으로 여겨 시간을 들여 모든 타당성과 적정 수량을 조사한 후 당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주일부터 개인용 의자로 바꾸어지게 되었다.

물론 이런 변경이 모두가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특히 의자 배열 상태에 따라 전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기에 교사가 섬기는 사람들의 수고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분반공부 시간에 둥그렇게 둘러앉음으로 학생들이 얼굴을 마주하고 교사가 전 학생을 보며 가르칠 수 있고 공부하며 교제할 수 있기에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이런 분반공부의 대대적인 변경이

일방적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식으로 유도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이와함께 예배나 집회 후 학생활동시간에는 필요에 따라 공간 배치를 자유롭게 함으로 토론, 세미나, 연극 등 발표의 공간이 열린 것이다.

이번에 들어온 개인용 의자는 교육관 507호와 514호실의 예배실용으로 600개를 들여왔다. 이의 활용도를 보아 교육관 5층의 부속실(교사실, 면회회실,

분반공부실, 찬양연습실 등)에도 바뀌게 된다.

현재 교육관 5층을 사용하는 부서는 중등2부, 중등3부, 청년1부, 청년2부이다.

이런 일을 기회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여건 개선 및 연구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면 명실상부하게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로 자리잡아 가게 될 것이다.

단기선교 파송예배

오늘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97 단기선교 사역을 위한 파송예배가 오늘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드려진다.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예배 시작 20분전에 나와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한다.

금년도 단기선교 사역지는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홍콩, 터키 등 4개국이며 참여인원은 60여명이 된다.

단기 선교지별 일정은 홍콩이 7월 12일부터 19일까지, 이스라엘이 7월 14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가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터키가 8월 15일부터 23일까지이다.

'새가족환영회' 있습니다

일 시 / 7월 13일 오후 2시 30분

장 소 / 갈릴리홀

참석대상 / 5월 4일~6월 29일에 등록한 성도 및 인도자, 교구장, 교역자, 지역장, 교구일꾼



맥추감사절 찬양예배

F. Mendelssohn

시온아 찬양하라 (Lauda Sion)

맥추감사절을 맞으며 수요일2부예배 찬양담당 찬양대인 실로암찬양대(대장 이훈 장로, 지휘 강임구, 반주 임효선)가 준비하여 오늘(7월 6일) 저녁 찬양예배를 맥추감사절 특별찬양예배로 드리게 되었다.

찬양곡명은 멘델스존의 '시온아

찬양하라' (Lauda Sion)로 합창에 있어서 단순한 4성부로, 때로는 유니손으로, 독창자들과의 응답 형식으로 다양하게 펼쳐진다.

곡중 독창 및 4중창에 소프라노 강신영, 알토에 박연숙, 테너에 이재욱, 베이스에 김근이다.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마지막 날에 될 일

(이사야 2:1-4)

이사야 2장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메시아의 시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구주로 세상에 오실 것과 복음을 증거할 때에 되어질 일들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땅 위에서 되어질 일까지를 이사야서의 여러 곳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1. 말일에 될 일을 보여 주신 '말씀'의 성격이 어떠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말씀'이란 말은 '아무개의 말씀이라'는 단순한 뜻이 아니고 네 가지 큰 뜻이 숨어 있습니다.

(1) '말씀'은 명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지음을 받은 인간은 순종하는 것이 옳고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나라의 시민인 성도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2) '말씀'은 부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성공한다. 그러나 네가 저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니 하지 마라" 하나하나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철없는 자식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에도 지혜와 사랑이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의 말씀은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탁만 잘 들으면 길을 잃어버릴 걱정이 없고 성공 못할 일이 없습니다.

(3) '말씀'은 약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끼리의 약속은 믿을 것도 없고, 믿지 못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복된 결과가 올 것입니다.

(4) '말씀'은 계시라는 뜻이 있어서 앞날에 될 일을 보여 줍니다

계시라는 뜻은 덮여 있어서 누구도 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바...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받았습니 다. 인간은 매일 아침에 될 일을 모릅니다. 또한 장래 일을 열어서 보여줄 인간도 없

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장래에 될 일을 인간들에게 열어서 보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르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이 열어 보여 주신 계시의 말씀만 따라서 살면서 복을 누리야 하겠습니까.

2. 말세에 되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말일'에란 '모든 날의 마지막 날' 또는 '해가 났다가 지는 모든 날의 마지막 날'이란 뜻입니다. 이 말일에 되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1)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메시아시대가 올 것입니다

'모든 산'이란 모든 나라를 뜻하는 것으로 "여호와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라는 말씀은 마지막 날이 되면 여호와와의 나라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명령하는 지도권을 가지는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에는 분열된 이스라엘 중 북쪽 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멸망하여 없어졌고 남쪽 유다마저 무서운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아 언제 어떻게 망할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이었습니 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은 이스라엘이 절반은 망해 없어지고 나머지 절반도 거의 망해 없어질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세력이 세계를 정복해 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앞으로 마지막 날이 오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나라를 정복했던 모든 나라, 즉 근방에 있는 강한 나라들과 땅 끝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열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여기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지 200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전 세계는 예루살렘을 사모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누구나 성지 예루살렘을 한 번 가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던 첫째해에는 대환영을 받으셨고, 2년째부터는 핍박도 겪어서 받으셨고 복음을 전하여 3년이 되면서부터는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갖은 모욕을 당하시다가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으셨니, 예수님의 복음이 없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모두 망했으나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 세계를 향해 뻗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예루살렘은 망했

모든 날의 마지막 날인 재림이 문 밖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절개를 팔아먹고,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어린애들이 늙은이를 업신여기는 이 모든 것이 마지막이 가까워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중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도 예루살렘의 복음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절반 이상이 망해 없어졌고 남쪽 유다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운명에 처해 있지만 앞으로 '여호와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라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온 세계를 정복하게 될 때에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자진해서 믿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셨던 성지를 향하여 찾아올 것이라고 메시아의 초림 이후에 그의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전파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2)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전쟁이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4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복음이 세계에 퍼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인간의 전쟁이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전쟁을 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지 말자고 외치는 지가 벌써 몇 천 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상에서 전쟁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사랑과 평화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전날까지 세상은 계속 싸울 것입니다. 과학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전쟁은 그만큼 더 폐참할 것뿐이지 싸움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의 입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눈에는 웃음을 짓고 있으나 가슴 속에는 칼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련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싸움이 끝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땅 위에서 편안히 살아 보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사람의 몸은 풀과 같이 시들고 그 아름다움은 꽃처럼 떨어지고 사람의 계획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사람의 생명은 풀꽃의 이슬처럼

떨어집니다. 풀꽃의 이슬은 가만 두어도 햇빛이 비치거나 바람이 불면 떨어지고 지나가는 개가 꼬리만 쳐도 떨어지듯이 사람은 가만 두어도 늙거나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세상 문명의 핸들을 악마의 줄도들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편안할 리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기 때문입니다. 재림이 가까워온다는 뜻은 지구덩어리가 심판의 불을 향하여 가까이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지구가 하루를 굴러가면 그만큼 심판에 가까워지고 날이 갈수록 죄악으로 더욱 뜨거워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날의 마지막 날인 재림이 문 밖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절개를 팔아먹고,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어린애들이 늙은이를 업신여기는 이 모든 것이 마지막이 가까워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때에 세상에 정을 붙이지 말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중나갈 신부로서 절개를 지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충성의 열매를 들고 마중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형편없는 나라였는데도 예루살렘이 세계에서는 존경받는 장소가 되었다고 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땅 위에 전쟁이 계속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야만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위태로운 세상에서 만년이나 살 것처럼 죄를 범하며 엉뚱뚱뚱 살지 말고 어느 시간에 세상을 떠나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Today's Message By Rev. Kim, Sung Kwan ●

● 김성관 목사의 금주 설교 ●

WHEN GOD SAYS NO!

(Deuteronomy 3:23-27)

As a child, I'm sure you can recall many occasions when you requested from your parents special permission to do something very important and your mother, father, or guardian said no. It was usually a heartbreaking situation that you couldn't understand at that time. Their actions were either for punishment reasons or beyond your understanding. As you grew older; however, you looked back and saw that those heartbreaking situations were most always in your best interest. Your parents' decisions were based on their love for you. The same principle applies to our relationship with God. There are times when our sincere prayers to God are denied because of our sin and/or since we do not understand His will.

Moses experienced both situations towards the end of his one hundred and twenty years (120) life. His life's history is truly remarkable. His birth occurred during Pharaoh's order to kill every new born Jewish male child. His mother tried desperately for three months to keep him but out of necessity sent him off in the Nile river in a water tight papyrus basket. His sister followed the basket; which was found by Pharaoh's daughter. She felt sorry for the Hebrew child and his sister recommended a Hebrew nurse, his mother. She nursed him and continually prayed over him; telling him that he was a child of God and part of God's chosen people. Moses never forgot those words. When he grew older, Pharaoh's daughter took him to be her son and named him Moses; which means drawn out from the water.

Moses was raised for forty years in the king's palace. He received the best political education. He was handsome, powerful, and intelligent. With all his fine Egyptian accommodations, his heart was still concerned for the suffering Hebrews. He tried at least twice to help his people and failed. He was forced to run away to a foreign land. He settled in the land of Midian where he married Zipporah, the daughter of Jethro (the priest of Midian); whereas he became a shepherd and tended his father-in-law's sheep for forty-years.

I can only imagine Moses' loneliness and pain during this time. He could enjoy all of the luxuries of Egypt as a son of the daughter of Pharaoh. Instead, however, he became a shepherd drawing water for the sheep of his father-in-law. I wonder how many times he complained of his suffering. All his life he served God's people, cried for them and was deeply saddened by their suffering. I wonder what he imagined his destiny to be?

After eighty years, forty-years in luxury and forty-years in loneliness, God came to Moses in the desert of Midian, near Horeb, the mountain of God. Moses saw a burning bush that did not burn up. He approached this bush in bewilderment. God called to him from within the bush and said, "Do not come any closer. Take off your sandals, for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holy ground" (Ex. 3:5). After forty-years of loneliness, Moses realized that the Lord was with him all the time.

God asked Moses to lead His people out of Egypt. Moses told God that he didn't have the needed communication skills and God displayed His majestic abilities; in the form of a special staff and his brother Aron. The Lord showed Moses His vision to bring His people to the promised land, the land that flows with milk and honey. It was a great honor that God chose Moses and told him His vision, which was Moses' vision too! Moses sincerely wanted to help His people and his vision truly coincided with God's idea. God promised Abraham more than four hundred and fifty-years ago that He would bring His people to the promised land. God specifically chose Moses whom he had prepared for eighty-years (forty-years of best education and forty-years of suffering).

I traveled to Africa and saw the types of trees they have in the desert. They are like thorn trees. No one like thorn trees. But Moses was attracted to the thorn tree. The fire that didn't burn drew him near, nearer to God. So close was he that God told him, "Do not come any closer. Take off your sandals, for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holy ground". God didn't choose a king of Egypt. Rather, He chose a shepherd to help fulfill His plan of deliverance.

Do you remember how long it took Moses to lead the Israelites to the



하나님이 아니라 하실 때

(신명기 3:23-27)

여러분들께서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당시에는 거절당한 까닭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였고 마음도 무척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한 후 되돌아볼 때 그 당시에는 마음이 몹시 아팠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결정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까닭에 그런 결정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죄악이나 주님의 뜻에 대한 무지 때문에 우리의 진지한 기도가 거절되기도 합니다.

모세는 120년이 되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은 실로 놀랍습니다. 그는 새로 태어나는 유대인들의 모든 사내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바로 왕의 명령이 내려진 당시에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모친은 석달 동안 그를 숨겨서 키웠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물이 새지 않는 바구니에 그를 담아 하숫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멀리 있을 때에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아이를 발견하였습니다. 바로의 딸은 우는 아기를 보고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아기의 누이는 바로의 딸에게 아이의 모친을 유모가 되도록 추천하였습니다. 그의 모친은 끊임없는 기도로 모세를 키우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모친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장하자, 바로의 딸은 그를 궁중에 데려가 자기의 아들을 삼고 그에게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인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사십년간 살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능하고 총명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특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그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에게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는 최소한 두 번에 걸쳐 그의 동족들을 도우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결과로 외국으로 도피하여야 했습니다. 그는 미디안땅에 정착하여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하여 40년간 장인의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모세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궁중에서 살던 모세가 갑자기 양들을 위하여 물이나 긴 양치는 목자로 전락하였으니 말입니다. 그가 그의 고통을 인하여 얼마나 많이 불평하였겠습니까.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살았으며, 그들을 위하여 울고 그들의 고통을 인하여 마음 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심한 처지에서 그는 얼마나 암담해 했을까요.

사십년간의 호화로운 생활과 사십년간의 외로움의 생활의 팔십년이 지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 근처의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소멸되지 않는 불타는 수풀을 보았고 놀라움 가운데 접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풀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출 3:5). 사십년의 외로운 세월 이후에 모세는 주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말을 잘할 줄 모른다고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막대기를 그에게 주시고 그의 형 아론을 보내심으로 그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비전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모세의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중심에서부터 그의 백성들을 돕기 원했었는데 그의 비전은 실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백오십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십년간의 최고의 교육과 사십년간의 연단을 통하여 팔십년 동안 준비해 놓으신 모세를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사막에서 자라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가시나무와 같았습니다. 가시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시나무에 끌려갔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그 나무는 모세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양치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는 데에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지

promised land? It was exactly forty-years. Not only did God use Moses to lead the people but He also performed many miracles. The number of people that left Egypt is esteemed at two million. One can only imagine the number of people and animals that arrived at the Jordan River forty years later. I know from experience that when I went to Chicago some twenty years ago there were about 10,000 Koreans. Today there are more than 100,000 Korean people living in Chicago. Who knows how many people arrived at the promised land after forty-years? Yet, God provided for them every day and in every way.

At the end of Moses' long journey, after he divided up the land amongst the Israelite tribes and prior to crossing the Jordan River, he talked with God. "At that time I pleaded with the Lord: O Sovereign Lord, you have begun to show to your servant your greatness and your strong hand. For what god is there in heaven or on earth who can do the deeds and mighty works you do? Let me go over and see the good land beyond the Jordan - that fine hill country and Lebanon" (vss. 23-25).

When Moses pleads with God, he opens his prayer with the words 'O Sovereign Lord'. Moses wrote the first five books of the Bible (Genesis, Exodus, Leviticus, Deuteronomy, Numbers), and in all his writings he only mentions the phrase 'O Sovereign Lord' four times; two of those times were when Abraham pleaded for his son Isaac's life. This signifies its deep and sincere meaning. Moses usually prays as a mediator between God and His people. This prayer is a personal prayer between God and himself.

In God's plan, Moses' job is finished. Moses confesses his faith and servanthood and acknowledges God as the Master. He begs that God would let him cross over and see the promised land. He really prays to finish God's vision which He placed within him. Moses struggled and sacrificed for this vision and wants desperately to complete it. The problem is that Moses doesn't understand God's will.

He knew that the Lord was angry at him because of the Israelites' prior rebellion, "But because of you the Lord was angry with me and would not listen to me. 'That is enough,' the Lord said, 'Do not speak to me anymore about this matter' (vs. 26). God's will for Moses was different from Moses' idea, it was ultimately better - much greater! God didn't need to hear anymore of Moses' request, for it was inconsequential.

What's even more sad is that God told Moses, "Go up to the top of Pisgah and look west and north and south and east. Look at the land with your own eyes, since you are not going to cross this Jordan" (vs. 27). In essence, God did grant Moses one-half of his request; although he wasn't physically allowed to step in the promised land, God vividly showed him everything. Moses went to the top of Pisgah alone to view the promised land. Not only that, but he died in the plains of Moab, directly below Pisgah. To this day, no one knows where his grave is (Deut. 34:6).

Moses almost finished his vision. He died alone and without his family. "Since then, no prophet has risen in Israel like Moses, whom the Lord knew face to face" (Deut. 34:10). It's difficult to imagine one of God's best prophets under these circumstances. Even Joseph was remembered and honored by His people, for they carried his bones into the promised land. In comparison, Moses received small recognition from his people, the people he directly served and led to the promised land for forty-years.

A wonderful thing happened here. It was the manifestation of God's secret and His amazing grace! When Apostle Paul was tormented by a thorn in his flesh and pleaded with God three times to take it away, the Lord replied,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2 Cor. 12:9). Also, Jesus prayed on the Mount of Olives saying, "Father, if you are willing, take this cup from me; yet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Luke 22:42). Jesus fervently prayed, so hard that his sweat was like drops of blood falling to the ground (vs. 44). Even though God denied all these requests, we know that His grace was sufficient.

A long time ago, about one thousand and four hundred years, Moses wanted to go to the promised land. Later, Jesus took Peter, John and James with him up onto the mountain to pray. "As He was praying, the appearance of His face changed, and His clothes became as bright as a flash of lightning. Two men, Moses and Elijah appeared in glorious splendor, talking with Jesus. They spoke about His departure, which He was about to bring to fulfillment at Jerusalem" (Luke 9:30-31). On the mountain of Jesus' transfiguration, the permanent promised land, Moses was present and his vision was truly fulfilled. Moses never crossed over the Jordan River and entered the promised land. However, he received something greater than even what he could possibly imagine. He entered the real promised land and discussed with Jesus the fulfillment of God's ultimate grace. Can anyone truly say how wonderful, how incredible, God's will is?

I really appreciate Martin Luther's theology which greatly emphasized faith. God's grace is so enormous, so much greater than we think. When we seek God's grace, our cross becomes bigger and bigger. When this happens, that is when we begin to understand the grace of God.

Sometimes when we earnestly pray, we don't get an answer. If God says no, we must examine our sinfulness. But sometimes when God says no, this is the greatest thing for us to hear because that is when God's plan will be accomplished in our lives.

아십니까? 그것은 정확히 사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사용하신 것뿐 아니라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애굽을 떠난 사람들의 수는 이백만 가량이 됩니다. 사십년 후에 요단강에 이르렀던 사람들의 수는 어떠하였는지 가히 상상이 됩니다. 약 이십여년 전에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에는 약 만명 가량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십만명이 넘는 한인들이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십년 후에 약속된 땅에 도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긴 여정 끝에 모세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그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신 3:23-25).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는 "주 여호와여"라는 말로 그의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성경의 첫 다섯 권을 썼는데, 모세 오경 중에 "주 여호와여"라는 말은 단지 네 번만 나옵니다. 그중 두 번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생명에 관하여 간구할 때 나왔습니다. 이 표현은 깊고 진지한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모세는 대부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모세의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 모세는 그의 신앙과 자기의 종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로 하여금 강을 건너가 약속의 땅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의 끝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구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비전을 위하여 애썼고 희생하였기에 끝마치는 일도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전에 반역한 일 때문에 그에게 노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26절).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모세의 생각과 달랐으며 모세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모세의 청을 더 이상 들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신 일이었습니다(27절).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청원의 절반을 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모세가 몸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리라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 위하여 비스가산 꼭대기에 홀로 올라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비스가산 바로 밑에 있는 모압평지에서 죽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신 34:6).

모세는 그의 비전을 거의 다 이루었습니다. 그는 가족이 없이 홀로 죽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신 34:10). 하나님의 최고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백성들에 의하여 기억되어지고 존경을 받는 자가 되어 그의 후예들은 그의 뼈를 약속의 땅으로 갖고 들어갔습니다. 상대적으로, 모세는 그가 직접 인도하였고 사십년 동안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그의 백성들에게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세 번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주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하셨습니다(고후 12:9). 또한 감람산에서의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눅 22:42).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그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44절).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나 예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족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천사백년 전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로 소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타나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짐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새"(눅 9:29-31). 영구적인 약속의 땅인 변화산상에 모세는 있게 되었고 이것은 진정 그의 비전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더욱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궁극적 은혜의 성취에 관하여 예수님과 논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누가 과연 참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음의 크게 강조한 마틴 루터의 신학을 매우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십자가는 더욱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더라도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악됨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듣기에 가장 훌륭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크고 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윤삼중

(목사, 2교구, 새가족부, 교정전도회 지도)

맥추절은 구약의 3대 절기(유월절, 맥추절, 수확절) 중의 두번째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곤 했습니다.

맥추절은 문자 그대로 소맥인 밀과 대맥인 보리를 추수하여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국하여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매년 처음 익은 열매인 밀과 보리를 거두어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여 초실절이라 부릅니다. 또한 맥추절을 유월절 다음날인 1월 16일부터 7일씩 계산하여 7주간만에 해당하는 절기라 하여 칠칠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또 유월절 다음날부터 50일째 맞는 절기라 하여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출 34:22) 여기서 칠칠절이란 유월절 후 50일만에 이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케 하려고 지킨 것입니다(신 16:9-17). 그 후에 유대인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시내산 율법수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절기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이 명절은 유월절과 장막절은 출애굽과 광야생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후대의 유대교는 칠칠절을 모세시대와 연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칠칠절’이라는 명칭은 밀 추수의 말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날에 사용되었는데 보리 수확으로 시작해서 밀 추수로 끝나는 곡물 추수 전 기간을 가리키며, 약 칠 주간이 기간이었습니다. 이 명절은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로 묘사되었습니다(민 28:26, 출 23:16). 이 절기는 그 백성이 그 만물과 첫 열매를 자발적으로 드리기 시작하는 때를 표시해 주고, 장막절로 끝나는 한 기간을 표시해 줍니다. 이 절기에는 안식일처럼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쉬었으며, 성회로 공포하였습니다(레 23:21, 민 28:26).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둬서라”(출 23:16)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칠주를 계수하여...” 그러므로 유월절 제2일부터 계수하여 7주 후 즉 제 50일째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곡식을 거두거나 추수한 것을 사용하는 일을 금하였습니다(레 23:14). 이 절기에 떡당이를 드리는 의식을 끝낸 후에 예배자들은 새 곡식 추수 가운데서 첫 열매를 개인적 예물로 바쳤습니다. 제사장이 그 헌물을 받았으며 과거에 배수신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의 땅에 그들이 정착하게 된 사실에 대해 감사드리는 의식이 뒤따랐습니다(신 26:1-11).

솔로몬 당시에도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대하 8:13). 스룹바벨 성전 당시에

는 남자들은 추수 헌물을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맥추절은 과거에 수천년에 걸쳐서 지켜왔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절기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므로써 그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맥추절인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사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행 2:1)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 절기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신약의 맥추절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바로 신약 교회의 생일이 이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맥추절은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그러면 맥추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먼저 구약 교회의 맥추절을 지켰던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교회는 첫째로 새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둘째로 묵은 곡식을 먹을 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며 지켰습니다. 셋째로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며 지켰습니다. 넷째로 서로 용서하며 화목하게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신약 교회는 메시아의 그림자인 절기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삼일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바치심이 되었고, 그의 첫 열매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심으로 맥추절의 깊은 의미를

친히 완성하셨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사실을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의 천 백성을 삼으신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절기는 본질상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주의 크신 구원의 은총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맥추절은 지키면서 내게 있는 것 중 얼마를 요구하시든지 과거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몸 버리고 피흘려 죽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자세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절기는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신 16:15)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성도들은 맥추절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제일로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중헌의 성도들은 맥추절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힘을 다하여 입으로 찬송을 드리며, 정성을 다해 물질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바르게 살기를 결심하며,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며, 서로 화목하며, 성령의 권능을 간구하며 바르게 지킵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새우는 어린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소년부(부장 이인상 장로, 지도 박노철 전도사)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곳이다. 또한 이곳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러니”(엡 4:13)라는 말씀을 주제 성구로 ‘첫째, 경건한 예배를 드리자. 둘째, 전도하여 배가의 부흥을 이루자. 셋째, 서로 사랑하여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자’라는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곳이기도 하다.

소년부의 아이들이 이곳에 8시 50분이나 10시 50분에 오면 먼저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런 후에는 전체 찬교 시간으로 새전구 환영이나 생일 축하 시간을 갖는다. 그런 다음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진리과, 충성과, 화평과 중한 과씩 돌아가면서 그 주일의 요절을 외운다고 한다. 그리고 광고 시간이 끝나면 반끼리 모임인 분반공부를 하게 된다. 이 시간에는 소년부 아이들에게 맞는 교재로 체계적으로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다. 또한 교사와 그 또래의 아이들끼리 찬교의 시간을 만들 수도 있다. 요즘 이곳에서는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다.

소년부에서는 아이들이 봉사할 수 있는 것으로는 찬양대나 면려회가 있다. 찬양대는 1부, 2부 따로따로 편성되어

※ 부서 탐방 / 소년부 ※

경건한 예배 교육에 중점 면려회 중심으로 전도활동 활발히 전개

있고 그에 따라 연습도 예배 시작 30분 전과 예배 후 1시간 동안 교육관 501호에서 따로 한다. 그리고 면려회는 토요일 12시에 교회에서 담당 교사와 아이들이 만나 논현, 역삼, 도성, 학동초등학교에 전도를 나간다. 그리고 주일에는 예배가 끝난 후 오후에 지도하시는 교사와 아이들이 모여 성경공부를 한다.

다른 교회학교 부서와 소년부는 8시 50분에 1부예배를 10시 50분에 2부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각각 그 부서 교사들의 활동 시간이 비슷하다. 대략 교사들은 오전 8시 20분에는 준비 기도회를 갖고 8시 50분에는 1부예배를, 10시 20분에는 2부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모이고 10시 50분에 2부예배를 드린다. 12시 15분쯤 2부 예배가 끝나면 교사 회의가 있고

1시에는 4부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렇게 쉴 시간 없이 너무 꼭 짜여져 있어서 지도하기에 좀 힘이 든다고 한다. 소년부에서는 아이들에게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끔 하

기 위해 아이들이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에 도착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과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지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소년부의 기도 제목은 이곳의 목표와 상통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전도하여 배가의 부흥을 이루는 것과 서로 사랑하여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글/박주영 기자, 사진/이윤구 기자)



첫 수확 첫 기쁨

피약별 진초록 숨어버린 바람
태양도 지쳐 가던 길 멈춰
보리밭에 살짝 내려와
땀 식히는 무더운 한낮.

알차게 영근 황금보리이삭
벗기고 벗긴 영혼의 속살
초실절 첫 수확 첫 기쁨
제일 먼저 드립니다.

머리 조아려 정성 드려도
항시 부족한 아쉬운 마음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흙과 티 없는 것을 추려
줍더 성결된 것을
줍더 성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별하고 또 구별하여
정성껏 바칩니다
성심껏 바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칩니다.

김운섭
(집사, 초동부 교사)

취재수첩

유치부 초청전도대회 실시

지난 주일 유치부에서는 어린이 초청전도대회가 있었다. 각반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목표를 세워 그만큼의 아이들을 초청하기 위해 한달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아이들이나 장기 결석자를 포함하여 31명의 아이들이 왔다고 한다. 이날 행사로는 찬양대원들의 특송과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성경이야기 순서가 있었다.



어린이초청잔치 연 초등부

지난 6월 29일(주일) 초등부에서는 어린이초청잔치가 복지관 지하 2층에서 열렸다. 이를 위해 5월부터 어린이들은 태신자를 작성하여 전도를 했다. 그리고 학원전도팀의 선생님들은 올 초부터 논현, 역삼, 인주, 학동초등학교에서 전도를 하였다. 장기 결석자인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연락하였다. 그래서 6월 한달 동안 새로 나온 친구는 모두 63명이나 된다. 이 날은 예배가 끝난 후에 초등부를 소개한 VTR을 상영하였고 그후 선생님과 어린이들이 함께 준비한 뮤지컬을 공연하였다. 그런 다음 모든 찬양대 어린이들이 모두 무대에 나와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들이 모두 끝난 후에는 인도자와 인

도된 새 친구를 위한 다과회 시간이 마련되었다.



소년부 성경고사 실시 오늘 중등3부에서도

소년부에서는 지난 6월 29일 2학기 성경고사를 실시하였다. 그동안 배운 공과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오늘은 중등3부에서 예배 후 학습평가를 실시한다.



▶ 중등3부는 다음 주일인 7월 13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514호에서 중등원 전도의 날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그동안 태신지를 작성하고 기도하며 전도한 학생들과 회원중학교 학교전도를 통하여 전도한 학생, 장기결석한 학생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부모님은 중원교회에 나오면서도 자녀들은 타교회에 나가거나 또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중3 자

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중등3부에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 교정전도회에서는 안수집사회의 지원을 받아 춘천소년원에 선풍기 24대를 기증하였다.

▶ 직능전도부내 특수전도회에서는 오는 7월 9일 역삼역과 자매 결연을 맺고 이를 감사하는 예배를 역삼역에서 드린다. 앞으로 특수전도회는 수도권지하철선교회를 지원하며 전도사역을 전개해 나가게 된다.

금주의 수련회 실시 부서

장년2부와 3부가 이번주 동안 수련회를 실시한다.

장년2부는 7월 7일과 8일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송인규 목사, 윤영탁 목사를 강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라는 주제 아래 수련회를 실시한다.

또 장년3부는 7월 8일과 9일 이틀간 갈릴리호에서 실시한다. 강사는 정규남 목사, 김희수 목사이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를 주제로 진행하게 된다.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충전하고 회원간에 보다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도네시아 서만수 선교사가 신

장제거 수술을 받고 현재 요양중에 있다. 서 선교사가 하루 속히 회복되도록 성도들의 기도를 바란다.

(글/박주영 기자, 사진/이윤구 기자)

수리남 안석렬 선교사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P.O.Box 8222 Paramaribo

Suriname South America

☎ 597-55-0090

단기선교를 위한 물품 수집

1. 품목 /

- ① 문구류
- ② 의약품 : 구충제, 비타민, 항생제, 해열진통제, 에미오제, 피부과 각종 연고
- ③ 의류 : 사계절 성인·유아외류
- ④ 여행용 대형 가방
- ⑤ 기타 생활필수품

2. 접수 /

- ① 기간 : 7월 6일~7월 27일
- ② 장소 : 선교위원회 사무실 (선교관 406호)

제작사진첩을 만듭니다

교회에서는 설립 마흔다섯 돌이 되는 1998년에 새로운 제작사진첩을 펴내려고 합니다. 제작에서는 단정한 차림으로 제 날짜에 찍혀서서 보다 알찬 사진첩을 만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찍는 곳 / 홍보실(선교관 408호)

· 찍는 때 / 1997년 6월 22일~12월 31일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수요일 낮 12시 30분~오후 7시

금요일 오후 6시~7시 30분

· 찍는 교구 / 1997년 7월 6일 : 3교구

1997년 7월 13일 : 4교구

· 찍을 사람 / 원로, 은퇴, 시무장로 / 교역자 / 은퇴집사, 안수집사 /

원로, 은퇴, 시무권사 / 남녀 서리집사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심방을 통해 얻은 기쁨

허정숙

(집사, 유치부 교사)

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용기를 얻고 담대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만심에 빠져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대고 집대로 행동한 교만함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재아가 살아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꼭 붙들고 있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중에 생각이 떠오르며 한번쯤에 안 내은 장기결석자를 먼저 방문해보기로 결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새벽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그 아이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침 어머니가 "집 찾기가 어려우실텐데 그냥 전화로 심방을 하시죠?" 하길래 저는 꼭 아이의 어머니를 만나야만 한다고 하나씩 허락을 하셔서 처음 가는 길을 기도하면서 한걸음 한걸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아이의 집에 도착해 보니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게 이웃집 아주머니들과 아이들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긴장된 상태에서 안정을 취하고 학생기록카드에 있는 아이의 얼굴과 비슷한 아이만 찾아보니, 그 아이는 헬륨 나를 쳐다보다가 친구들과 나무나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어머니를 우선 조용한 방으로 가도록 하고 그 아이를 붙잡고 간절히 '예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와 다시 깊은 대화로 시간은 흐르고 떠돌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조용해져서 서로 좋아하는 찬송을 어머니와 부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다시 가정의 문제에 대해 어머니 이야기를 다 듣고 서로 평판과 체제가 같은 모습속에 때를 맞대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어 서로 눈물을 흘리며 서로 감사함으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것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다음 주일 아이와 같이 유치부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했지만 실제 행동도 안해보고 체함도 없으면서 변화되어지기를 여간 힘이 든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란 팔거진 일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번 심방을 통해서 학생들의 가정행편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니, 더더욱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아이와 학부모의 만남을 위해 저의 작은 시간과 수고가 있었지만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봉사를 내 열심으로 했다면 금방 불행이 나오고 원망했을텐데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를 받게 위해 말씀생활과 기도생활과 성령충만한 생활을 갈망하고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개인의 생활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아픈 몸도 낫게 해주시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도 유치부에서 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어린이 대심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게 해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이와 같은 심정으로 어린 한 생명 생명들을 섬기며 가르치시기 위해 신령한 말씀으로 또 저희 교사들에게 들려 주시는 환영준 전도사님과 기도하시는 장로님, 유치부를 위해서 사랑과 봉사로 애쓰시는 권사님과 각반 과장 선생님들 또 70여명의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시며 애쓰시고 계십니다. 이런 유치부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만한 부처로 보여지기를 기도하며 주안에서 각 제제들과 서로 교제하고 때를 때때 하나님께 찬미로 주일마다 1부 9세, 2부 11세 예배가 시작됩니다.

'말씀에 적어 연락하고 부축하며 설수와 해물이 많은 저는 하나님께 주신 교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매주마다 긴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재가정을 심방가는 엘로 두려움 속에서 깊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고 세상 속에 얽매어 근심 걱정애 순간순간 내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교편 속에 해루해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송에 때를 스쳐 지나가고 우선 애 문제를 가지고 새벽기도를 세